

童詩 비스자루

요—리조리 베면 저고리 되고,
이—렇게 베면 큰총되지.

누나하구 나하구
가위로 종이 쓸았더니,
어머니가 비스자루 들고
누나하나 나하나
불기짜을 때렸소
방바닥이 어지럽다고—.

◇

아니 아—니
고놈의 비스자루가
방바닥 쓸기 싫으니
그래 사지 그랬서
꽤 심하여 벽장속에 감췄더니
이튿날아침 비스자루가 없다고
어머니가 야단이지요.

『카톨릭 少年』 (1936.12)에서

빗자루

요—리조리 베면 저고리 되고
이—렇게 베면 큰총 되지.

누나하구 나하구
가위로 종이 쓸았더니
어머니가 빗자루 들고
누나 하나 나 하나
불기짜을 때렸소
방바닥이 어지럽다고—.

아니 아—니
고놈의 빗자루가
방바닥 쓸기 싫으니
그랬지 그랬어

꽤 씹하여 벽장 속에 감췄더니
이튿날 아침 빗자루가 없다고
어머니가 야단이지요.

1936. 9. 9.(1936.12. 이후 개작)